

■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

“생태·환경 복원 전제맨 영산강 뱃길 복원 찬성”

18대 국회 출마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10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게 된 만큼 지역민들은 새로 국정에 참여하게 될 20명의 지역 당선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민의 삶과 생활방식을 결정짓는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다.

“혁신도시 축소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18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해 ‘생태·환경 복원’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업 축소·수정이 검토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절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며, 민심과 이반된 독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 민주당 세력과 열린우리당 세력의 화학적 결합 그리고 차세대 정치지도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일보가 21일과 22일 이틀간 광주·전남지역 18대 총선 당선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선자들은 2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8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그러나 뱃길복원 방식은 친환경적이고 생태보전적이며 관광과 레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며, 한반도 대운하처럼 물류·산업중심의 뱃길복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머지 2명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현재 추진되는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축소 또는 수정 없이 반드시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독선과 편향, 위기관리능력 부재 그리고 특정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으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한·미 쇠고기 협상’을 가장 큰 실절로 꼽았다. 당선자들은 또 호남정치가 지역 민과의 소통을 이루지 못해 조정능력을 상실했으며, 지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당의 화합과 인적구조 쇄신 그리고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광주·전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 대해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17명)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9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9명), 호남 고속철 조기완공(7명)이 뒤를 이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 시리즈 2면·관련기사 7면



화물차 ‘스톱’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각화동 화물터미널에 치솟는 경유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행을 포기한 대형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운송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자발적 폐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평기자 mjna@

정부, LED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광주 광산업 탄력받는다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을 중점 추진키로 해 광주 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 조명등의 30%를 단계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키로 한데 이어 지역에 있는 한 국광기술원이 국책사업인 LED 국가표준화(KS)사업을 추진, 광주시 LED 산업의 질적 성장은 물론 관련 제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가 전체 공공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LED 1530 프로젝트(153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신호등, LED 유도등 등 교체대상 조명등의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시범 적용 대상 공공건물 선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153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현재 87개 업체인 광주시의 LED 조명 관련 업체가 115개로 늘어

나는 한편, 연간 1천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1530 프로젝트’와 연계해 오는 2009년~2012년까지 5년간 모두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반도체 조명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광산업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LED 국가 표준화 사업도 광주 광산업 발전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ED 국가표준화 사업은 LED조명의 실용화와 품질보증을 위한 국가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LED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광주 지역 LED 기술력이 반영된 LED 국가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광주 LED기업들이 KS인증을 받는데 한층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국광기술원이 LED 국

표준 규격 검사·인증 업무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광주지역 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제품인증 및 인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역 LED조명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를 도입기로 LED 유도 등 8품목, 2009년~2010년은 성장기로 형광램프 대체용 LED 램프 등 7품목, 2011년~2012년은 성숙기로 의료용 LED 등 5품목에 대한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사 관계 선진화 전남 전국첫 협약

전남도가 올해를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관계 선진화협약’을 맺었다.

전남도는 “24일 담양 금성산성에서 도내 노·사·정 대표 1천여명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진화 협약을 맺고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정은 협약문에서 “산업과 고용 기반이 취약한 전남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자 분야에서 ‘기업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다짐했다.

또 각 주체별 행동규범으로 ▲노측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할 것 ▲사측은 투명한 윤리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채희종기자 chae@

주중 美 쇠고기 검역 재개...내달 초 국내 유통

27일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와 함께 지난해 10월초 이후 거의 8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달 하순부터는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LA갈비도 4년 반 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보장된 검역 조건 등을 담은 장관 고시를 이르면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소장골,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골·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의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예정대로 27일 고시가 이뤄질 경우, 우선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여 있는 5천 300톤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검역 신청, 검역관 검사, 합격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는 6월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주) 조이트레블
대표전화 (062) 234-3222

입원스킨케어
299,000
399,000
429,000

549,000 / 459,000
279,000

399,000
629,000
599,000

749,000
829,000
829,000

1,890,000
1,990,000

699,000
649,000
239,000

미국비자 / 중국비자
062-233-5900